

#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발달 궤적 분석(II): 만 5세와 초등 1학년 시기의 변화

| 최은영

1. 서론
  2.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인지발달 및 적응행동 비교
  3. 만 5세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특성별 변화
  4. 제언
- 참고문헌

#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발달 궤적 분석(II): 만 5세와 초등 1학년 시기의 변화<sup>1)</sup>

최은영 선임연구위원

## SUMMARY

- 본 글에서는 생애초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아의 발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년도 조사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2차년도 추적조사를 통해 아동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의 변화를 분석함.
- 인지발달(K-WPPSI-IV)에서는 전체 IQ 점수는 두 시점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언어이해지표와 일부 하위 과제(상식, 위치찾기, 모양맞추기)는 2차년도에 유의하게 낮아짐. 반면 적응행동(K-Vineland-2)은 생활기술, 사회성 영역을 중심으로 2차년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져, 초등학교 진학 이후 아동의 전반적 적응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전체 IQ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적응행동의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여가, 대처기술, 소근육 영역에서 여아의 향상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음.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대부분 나타나지 않았음.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생활기술·개인·가정 영역에서는 고소득 집단 아동이 더 큰 향상을 보임.
-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이후 아동이 인지적 성취보다는 생활기술과 사회적 적응 능력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경험하며,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환경에 따라 발달 영역별 차별적 궤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함. 이에 아동의 생활기술과 사회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본 글은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반과제로 수행한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II)'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함.

## 1

## 서론

- ▶ 가정배경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의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 등장한 문제는 아니지만, 온라인교육 상황이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가정으로 전가시킨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격차의 실태를 만들었다(이정연, 2021)는 지적도 있음.
  - 이는 Bourdieu(1973)의 문화자본 이론에 따라, 부모의 학력·문화적 배경이 아동의 학습자본 형성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교육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됨을 설명함.
- ▶ 아동·청소년의 공부 시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학습 시간의 변화가 사회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 이러한 결과는 Coleman(1988)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 말하는 부모의 감독, 정보 제공, 시간관리 등의 격차가 아동의 시간 활용 방식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 교육격차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교육이나 부모의 교육적 지원 등과 같은 요인들을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유한구, 2006: 9).
  - 비빈곤 가정 유아와 빈곤경험 유아의 유아기 문제행동, 취학전 학습준비도, 초등 입학후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집단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취학 전 학습준비도와 초등 입학후 학교적응은 비빈곤 유아보다 빈곤경험이 있는 유아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이완정, 김미나, 2018).
-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의 학습과 발달 측면에서의 우려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가정 분위기, 부모와의 상호작용, 부모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가 상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함.
  - Glynn, Davis, Luby, Baram과 Sandman(2021)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유아의 행동 문제가 증가했으나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더 많이 하는 가정에서는 아동의 우울 증상과 외현화 행동에서 수준이 낮게 나타나며 부정적인 결과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고함.
- ▶ 본 글에서는 약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누적된 2022년 시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취학 전-후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
  - 이를 통해 드러난 사회경제적 영향 및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의 격차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실제적인 격차 해소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둠.

## 2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인지발달 및 적응행동 비교<sup>2)</sup>

## 가. 인지발달 비교

▶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검사(K-WPPSI-IV) 결과,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전체 IQ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본지표 중 언어이해지표에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점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차년도 평균은 110.65( $SD = 14.21$ ), 2차년도 평균은 105.63( $SD = 15.09$ )으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하게 낮아짐.
- 종합하면,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은 전반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차이는 없으나, 언어이해지표가 2차년도에 유의하게 낮아졌음.

[표 1] 초등 1학년 아동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인지발달 차이

N = 40, 단위: 점

소검사/지표	환산점수 <sup>1)</sup> / 지표점수 <sup>1)</sup>		<i>t</i>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토막짜기	12.25(3.90)	12.45(3.82)	-.282
상식	11.95(2.93)	10.75(3.43)	2.463*
행렬추리	11.48(4.31)	11.50(3.16)	-.037
동형찾기	11.75(3.12)	12.78(4.02)	-1.784
그림기억	10.90(3.38)	11.33(3.32)	-.846
공통성	11.48(2.42)	10.95(2.40)	1.650
공통그림찾기	11.98(2.77)	11.43(2.09)	1.327
선택하기	10.73(2.90)	10.13(2.95)	1.185
위치찾기	12.28(2.68)	11.15(3.08)	2.278*
모양맞추기	11.93(2.87)	10.15(2.68)	3.323**
선택하기(비정렬)	10.85(3.09)	9.98(2.87)	1.636
선택하기(정렬)	10.03(3.00)	9.95(2.75)	.149
언어이해지표	110.65(14.21)	105.63(15.09)	2.736**
시공간지표	111.58(16.77)	106.90(15.67)	1.735
유동추론지표	111.45(19.22)	109.80(12.24)	.634
작업기억지표	110.73(15.07)	108.53(16.55)	.949
처리속도 지표	107.45(15.53)	108.73(16.77)	-.527

2) 인지발달 검사(K-WPPSI-IV)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한 검사이며,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는 부모 평정에 의한 결과로 사례 수에 차이가 있는데, 만 5세 시기에 참여한 100명을 추적하여 인지발달 검사에는 총 40명, 적응행동 검사에는 57명이 참여함.

소검사/지표	환산점수 <sup>1)</sup> / 지표점수 <sup>1)</sup>		<i>t</i>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전체IQ	111.25(17.05)	111.20(14.33)	.026
비언어지표	110.98(17.72)	112.70(14.56)	-.781
일반능력지표	111.73(17.89)	109.08(15.16)	1.182
인지효율성 지표	109.45(15.89)	108.90(16.84)	.218

주: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되며, 지표점수 및 전체IQ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  $p < .05$ , \*\*  $p < .01$ .

## 나. 적응행동 비교

▶ 초등 1학년 아동의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 결과,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점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 1학년 아동의 1차년도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08.51( $SD = 13.88$ ), 2차년도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15.89( $SD = 16.40$ )로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짐.

[표 2] 초등 1학년 아동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적응행동 차이

영역	v-척도점수 <sup>1)</sup> / 표준점수 <sup>1)</sup>		<i>t</i>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하위	수용	16.47(2.49)	16.30(2.46)
	표현	17.00(2.65)	17.33(2.77)
	개인	16.70(3.16)	17.54(2.39)
	가정	16.37(2.96)	17.51(3.51)
	대인관계	17.67(2.60)	18.32(2.37)
	놀이 및 여가	16.09(3.25)	17.32(3.29)
	대처기술	16.72(2.81)	17.68(2.99)
	대근육	14.67(2.07)	15.14(1.14)
	소근육	15.75(1.90)	16.61(1.71)
주	의사소통 영역	110.82(12.86)	112.33(16.18)
	생활기술 영역	109.72(17.46)	-4.086***
	사회성 영역	110.86(15.74)	-3.144**
	운동기술 영역2)	101.00(16.19)	-1.256
	적응행동 조합점수	108.51(13.88)	-5.102***

주: 1)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되며, 적응행동의 주영역 및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2) 주영역의 운동기술 영역은 7:00세 이상은 산출되지 않아 표본수가 16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주영역에서는 생활기술 영역이 유의한 점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년도 평균이 109.72 ( $SD = 17.46$ ), 2차년도 평균이 116.28 ( $SD = 17.33$ )로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짐.
- 사회성 영역에서도 유의한 점수차가 나타났는데, 1차년도 평균이 110.86( $SD = 15.74$ ), 2차년도 평균이 115.93( $SD = 15.20$ )으로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짐.
- 종합하면,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은 전반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점수 차가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영역과 운동기술 영역을 제외한 주영역 표준점수와 적응행동 조합점수가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졌음.

### 3

## 만 5세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특성별 변화

### 가. 성별에 따른 종단비교

#### 1) 인지발달 비교

▶ 초등 1학년 아동의 전체 IQ는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와 성별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음.

[표 3] 초등 1학년 아동의 성별과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소검사/지표		<i>M(SD)</i>		<i>F</i>			단위: 점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토막짜기	남(n=22)	12.41(3.54)	12.0(3.42)	.135	.073	.766	
	여(n=18)	12.06(4.40)	12.94(4.32)				
	전체(n=40)	12.25(3.90)	12.45(3.82)				
상식	남(n=22)	12.50(3.17)	10.36(3.77)	5.518*	.041	4.973*	
	여(n=18)	11.28(2.54)	11.22(3.00)				
	전체(n=40)	11.95(2.93)	10.75(3.43)				
그림기억	남(n=22)	10.64(3.00)	11.64(3.44)	.520	.003	1.627	
	여(n=18)	11.22(3.86)	10.94(3.21)				
	전체(n=40)	10.90(3.38)	11.33(3.32)				
위치찾기	남(n=22)	12.23(2.47)	11.41(2.65)	5.380*	.091	.465	
	여(n=18)	12.33(2.99)	10.83(3.59)				
	전체(n=40)	12.28(2.68)	11.15(3.08)				
모양 맞추기	남(n=22)	12.50(2.72)	10.73(2.51)	10.658**	3.555	.000	
	여(n=18)	11.22(2.96)	9.44(2.79)				
	전체(n=40)	11.93(2.87)	10.15(2.68)				

소검사/지표	M(SD)		F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언어이해 지표	남(n=22) 여(n=18) 전체(n=40)	111.59(15.32) 109.50(13.08) 110.65(14.21)	105.23(15.61) 106.11(14.86) 105.63(15.09)	6.914*	.019	.643	
	남(n=22) 여(n=18) 전체(n=40)	113.73(14.64) 108.94(19.17) 111.58(16.77)	107.41(13.33) 106.28(18.53) 106.90(15.67)		2.711	.447	.448
	남(n=22) 여(n=18) 전체(n=40)	109.77(13.36) 111.89(17.25) 110.73(15.07)	110.14(15.21) 106.56(18.31) 108.53(16.55)		1.153	.026	1.515
시공간 지표	남(n=22) 여(n=18) 전체(n=40)	112.23(15.88) 110.06(18.79) 111.25(17.05)	111.50(14.54) 110.83(14.47) 111.20(14.33)	.000	.092	.147	
	남(n=22) 여(n=18) 전체(n=40)	111.50(16.68) 110.33(19.38) 110.98(17.72)	113.23(14.88) 112.06(14.57) 112.70(14.56)		.587	.062	.000
	남(n=22) 여(n=18) 전체(n=40)	113.50(16.61) 109.56(19.61) 111.73(17.89)	108.91(15.15) 109.28(15.60) 109.08(15.16)		1.165	.138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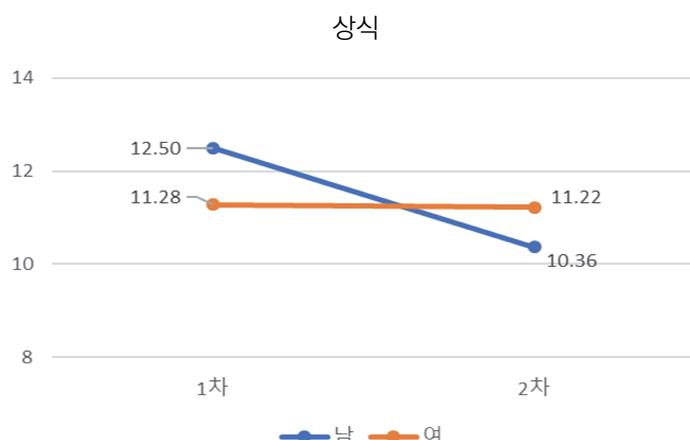
\*  $p < .05$ , \*\*  $p < .01$ .

▶ 언어이해지표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차수( $F = 6.914^*$ )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상식 소검사의 경우에는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F = 4.973^*$ )와 차수( $F = 5.518^*$ )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그림 2] 상식에서 성별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단위: 점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남아의 경우 1차년도( $M = 12.50, SD = 3.17$ )에 비해 2차년도( $M = 10.36, SD = 3.77$ )에 상식 소검사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 차수에 따른 유의한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공간지표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토막짜기 소검사의 경우에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다만 모양맞추기 소검사에서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차수( $F = 10.658^{**}$ )에 따른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작업기억지표의 경우에도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림기억 소검사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음.

- 다만 위치찾기 소검사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차수( $F = 5.380^*$ )에 따른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2) 적응행동 비교

▶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 $F = 26.005^{***}$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 초등 1학년 아동의 성별과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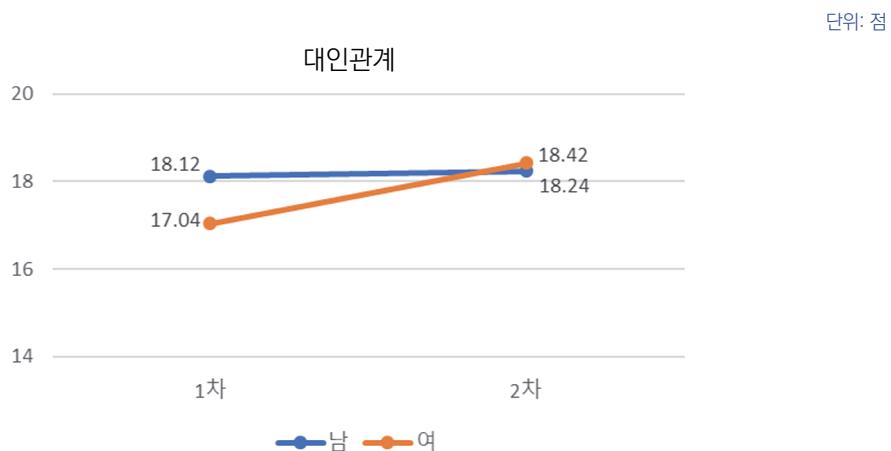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수용	남(n=33)	16.42(2.21)	16.42(2.60)	.412	.024	.412
	여(n=24)	16.54(2.89)	16.13(2.29)			
	전체(n=57)	16.47(2.49)	16.30(2.46)			
표현	남(n=33)	17.30(2.78)	17.21(3.08)	1.263	.117	1.881
	여(n=24)	16.58(2.45)	17.50(2.34)			
	전체(n=57)	17.00(2.65)	17.33(2.77)			
개인	남(n=33)	16.21(3.55)	17.30(2.74)	5.884*	1.661	.812
	여(n=24)	17.38(2.45)	17.88(1.80)			
	전체(n=57)	16.70(3.16)	17.54(2.39)			
가정	남(n=33)	16.30(2.89)	17.48(3.70)	13.038**	.017	.025
	여(n=24)	16.46(3.11)	17.54(3.30)			
	전체(n=57)	16.37(2.96)	17.51(3.51)			
대인관계	남(n=33)	18.12(2.57)	18.24(2.51)	6.404*	.577	4.497*
	여(n=24)	17.04(2.56)	18.42(2.21)			
	전체(n=57)	17.67(2.60)	18.32(2.37)			
놀이 및 여가	남(n=33)	16.48(3.28)	17.67(3.26)	9.429**	1.304	.019
	여(n=24)	15.54(3.19)	16.83(3.33)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대처기술 영역	전체(n=57) 남(n=33) 여(n=24)	16.09(3.25) 16.67(2.99) 16.79(2.62)	17.32(3.29) 17.39(3.11) 18.08(2.84)	8.123**	.339 .635
	전체(n=57)	16.72(2.81)	17.68(2.99)		
	남(n=33) 여(n=24)	14.91(1.84) 14.33(2.35)	15.48(1.03) 14.67(1.13)		
대근육 영역	전체(n=57)	14.67(2.07)	15.14(1.14)	4.172	3.315 .297
	남(n=33) 여(n=24)	15.58(2.08) 16.00(1.64)	16.48(1.91) 16.79(1.41)		
	전체(n=57)	15.75(1.90)	16.61(1.71)		
소근육 영역	남(n=33) 여(n=24)	111.61(12.89) 109.75(13.02)	112.36(17.77) 112.29(14.07)	10.108**	.807 .048
	전체(n=57)	110.82(12.86)	112.33(16.18)		
	남(n=33) 여(n=24)	107.94(18.24) 112.17(16.39)	115.48(19.01) 117.38(15.05)		
생활기술 영역	전체(n=57)	109.72(17.46)	116.28(17.33)	15.241***	.484 .512
	남(n=33) 여(n=24)	112.45(16.28) 108.67(15.03)	115.97(15.52) 115.88(15.08)		
	전체(n=57)	110.86(15.74)	115.93(15.20)		
사회성 영역	남(n=33) 여(n=24)	108.70(14.43) 108.25(13.38)	115.36(17.60) 116.63(14.93)	10.833**	.255 1.285
	전체(n=57)	108.51(13.88)	115.89(16.40)		
	남(n=33) 여(n=24)	108.51(13.88)	115.89(16.40)		

\*  $p < .05$ , \*\*  $p < .01$ , \*\*\*  $p < .001$ .

- ▶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용과 표현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 생활기술 영역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 $F = 15.241***$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개인( $F = 5.884^*$ )과 가정( $F = 13.038^{**}$ )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 사회성 영역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 $F = 10.833^{**}$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다만 대인관계 하위영역에서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F = 4.497^*$ )와 차수( $F = 6.404^*$ )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여아의 대인관계 점수는 2차에서 크게 향상되어 남아와 유사하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발달에서 성별에 따라 시기별 성장 궤적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3] 대인관계에서 성별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여아의 경우 1학년도( $M=17.04, SD=2.56$ )에 비해 2학년도( $M=18.42, SD=2.21$ )에 대인관계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의 경우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놀이 및 여가( $F=9.429^{**}$ ), 대처기술( $F=8.123^{**}$ ) 하위영역은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대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근육( $F=10.108^{**}$ ) 하위영역은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종단비교

##### 1) 인지발달 비교

▶ 초등 1학년 아동의 전체 IQ는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5]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소검사/지표		M(SD)		F			단위: 점
		1차	2차	차수	맞벌이	차수*맞벌이	
토막짜기	맞벌이(n=22)	11.86(4.21)	12.06(4.24)	.001	1.038	.041	
	외벌이(n=15)	13.13(3.74)	13.00(3.53)				
	전체(n=37)	12.38(4.02)	12.43(3.94)				
상식	맞벌이(n=22)	12.55(3.16)	11.27(3.60)	3.924	1.289	.141	
	외벌이(n=15)	11.27(2.71)	10.40(3.36)				
	전체(n=37)	12.03(3.01)	10.92(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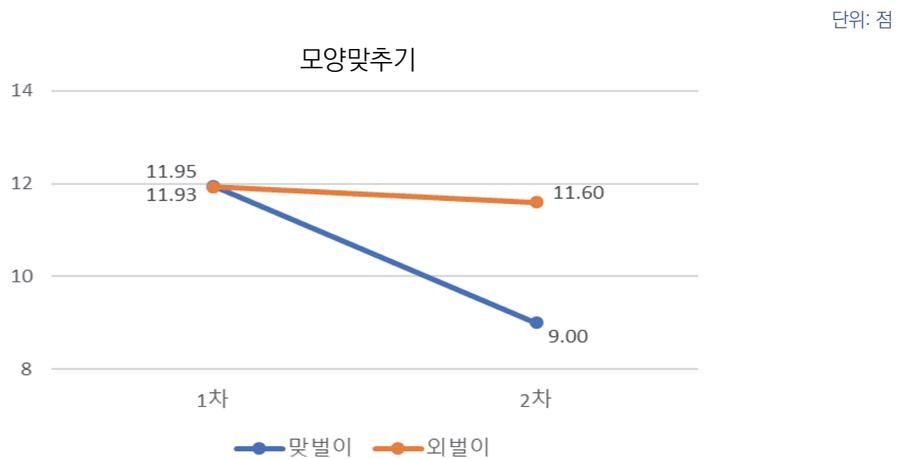
소검사/지표	M(SD)		F		
	1차	2차	차수	맞벌이	차수*맞벌이
그림기억	맞벌이(n=22)	11.55(3.61)	11.77(3.22)	.486	.079
	외벌이(n=15)	10.27(3.22)	10.80(3.71)		
	전체(n=37)	11.03(3.47)	11.38(3.41)		
위치찾기	맞벌이(n=22)	12.45(2.79)	10.73(2.93)	3.574	1.918
	외벌이(n=15)	12.20(2.68)	11.93(3.51)		
	전체(n=37)	12.35(2.71)	11.22(3.19)		
모양 맞추기	맞벌이(n=22)	11.95(3.27)	9.00(2.23)	9.163**	5.824*
	외벌이(n=15)	11.93(2.58)	11.60(2.72)		
	전체(n=37)	11.95(2.97)	10.05(2.73)		
언어이해 지표	맞벌이(n=22)	113.09(16.08)	107.77(17.10)	5.814*	.044
	외벌이(n=15)	108.87(11.53)	104.40(11.55)		
	전체(n=37)	111.38(14.39)	106.41(15.01)		
시공간 지표	맞벌이(n=22)	110.55(18.90)	102.23(15.00)	2.720	1.472
	외벌이(n=15)	114.20(15.19)	112.93(16.31)		
	전체(n=37)	112.03(17.36)	106.57(16.22)		
작업기억 지표	맞벌이(n=22)	113.32(15.90)	108.68(16.66)	.593	1.264
	외벌이(n=15)	108.40(14.31)	109.27(18.32)		
	전체(n=37)	111.32(15.27)	108.92(17.11)		
전체 IQ	맞벌이(n=22)	113.23(18.24)	111.64(17.70)	.016	.407
	외벌이(n=15)	110.87(16.13)	111.93(8.01)		
	전체(n=37)	112.27(17.22)	111.76(14.41)		
비언어 지표	맞벌이(n=22)	113.68(17.46)	112.14(17.20)	.349	1.593
	외벌이(n=15)	109.93(18.39)	114.20(10.92)		
	전체(n=37)	112.16(17.68)	112.97(14.83)		
일반능력 지표	맞벌이(n=22)	114.18(18.30)	109.55(18.20)	1.649	.505
	외벌이(n=15)	110.47(17.92)	109.13(8.90)		
	전체(n=37)	112.68(17.99)	109.38(14.97)		

\*  $p < .05$ , \*\*  $p < .01$ .

▣ 언어이해지표의 경우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차수( $F = 5.814^*$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상식 소검사는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시공간지표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토막짜기 소검사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다만, 모양맞추기 소검사에서는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 $F = 5.824^*$ )와 차수( $F = 9.163^{**}$ )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1차 시기에는 맞벌이 여부가 모양맞추기 과제 수행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남 (2차)에는 맞벌이 아동의 수행력이 저하되면서 외벌이 아동과 차이가 나타남.

[그림 4] 모양맞추기에서 맞벌이 여부와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1차년도( $M = 11.95, SD = 3.27$ )에 비해 2차년도( $M = 9.00, SD = 2.23$ )에 모양맞추기 소검사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벌이 가정의 아동은 차수에 따라 점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작업기억지표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림기억과 위치찾기 소검사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2) 적응행동 비교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 $F = 19.541^{***}$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6]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단위: 점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맞벌이	차수*맞벌이
수용	맞벌이(n=30)	16.77(2.22)	16.10(2.62)	1.907	.055	.655
	외벌이(n=23)	16.65(2.08)	16.48(2.17)			
	전체(n=53)	16.72(2.14)	16.26(2.42)			
표현	맞벌이(n=30)	17.27(2.41)	17.03(2.80)	.545	.001	1.866
	외벌이(n=23)	16.78(2.86)	17.57(2.79)			
	전체(n=53)	17.06(2.60)	17.26(2.78)			
개인	맞벌이(n=30)	16.70(3.39)	17.70(2.15)	3.019	.025	2.130
	외벌이(n=23)	17.04(2.74)	17.13(2.77)			
	전체(n=53)	16.85(3.10)	17.45(2.43)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맞벌이	차수*맞벌이
가정	맞벌이(n=30)	16.40(3.40)	17.30(3.72)	10.723**	.299
	외벌이(n=23)	16.52(2.37)	17.78(3.34)		
	전체(n=53)	16.45(2.97)	17.51(3.54)		
대인관계	맞벌이(n=30)	17.63(2.62)	18.27(2.00)	3.680	.034
	외벌이(n=23)	17.83(2.50)	18.35(2.67)		
	전체(n=53)	17.72(2.54)	18.30(2.29)		
놀이 및 여가	맞벌이(n=30)	16.27(3.22)	17.37(3.19)	7.808**	.056
	외벌이(n=23)	16.17(3.08)	17.48(3.25)		
	전체(n=53)	16.23(3.13)	17.42(3.18)		
대처기술	맞벌이(n=30)	16.70(2.81)	17.20(3.09)	5.933*	1.179
	외벌이(n=23)	16.91(2.94)	18.22(3.00)		
	전체(n=53)	16.79(2.84)	17.64(3.06)		
대근육	맞벌이(n=30)	15.23(1.19)	15.27(1.17)	3.114	2.538
	외벌이(n=23)	14.35(2.21)	15.00(1.04)		
	전체(n=53)	14.85(1.75)	15.15(1.12)		
소근육	맞벌이(n=30)	16.07(1.82)	16.70(1.76)	7.907**	.259
	외벌이(n=23)	15.43(2.04)	16.35(1.75)		
	전체(n=53)	15.79(1.93)	16.55(1.75)		
의사소통 영역	맞벌이(n=30)	112.60(12.04)	111.20(16.89)	.064	1.166
	외벌이(n=23)	110.65(11.67)	112.91(14.98)		
	전체(n=53)	111.75(11.81)	111.94(15.96)		
생활기술 영역	맞벌이(n=30)	109.80(19.21)	116.17(17.59)	10.935**	.281
	외벌이(n=23)	111.22(14.51)	115.83(18.04)		
	전체(n=53)	110.42(17.18)	116.02(17.61)		
사회성 영역	맞벌이(n=30)	111.13(15.65)	114.83(14.30)	7.512**	.362
	외벌이(n=23)	111.74(15.61)	117.52(16.17)		
	전체(n=53)	111.40(15.48)	116.00(15.05)		
적응행동 조합점수	맞벌이(n=30)	110.00(13.52)	115.63(17.15)	19.541***	.269
	외벌이(n=23)	108.61(12.54)	115.74(15.98)		
	전체(n=53)	109.40(13.00)	115.68(16.50)		

\*  $p < .05$ , \*\*  $p < .01$ , \*\*\*  $p < .001$ .

- ▶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용과 표현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 생활기술 영역의 경우,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 $F = 10.935^{**}$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가정( $F = 10.723^{**}$ )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유의하였으며, 개인 하위영역은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사회성 영역의 경우,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 $F = 7.512^{**}$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놀이 및 여가( $F = 7.808^{**}$ ), 대처기술( $F = 5.933^{*}$ )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대인관계 하위영역은 상호작용과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대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근육( $F = 7.907^{**}$ ) 하위영역은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다. 가구소득에 따른 종단비교

### 1) 인지발달 비교

▶ 초등 1학년 아동의 전체 IQ는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소검사 점수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7] 초등 1학년 아동의 가구소득과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소검사/지표		MSD		F			단위: 점
		1차	2차	차수	소득	차수*소득	
토막짜기	600미만(n=8)	12.75(4.40)	13.50(3.66)	.110	.490	.232	
	600이상(n=29)	12.28(3.99)	12.14(4.02)				
	전체(n=37)	12.38(4.02)	12.43(3.94)				
상식	600미만(n=8)	11.50(2.33)	12.25(1.58)	.504	.200	3.734	
	600이상(n=29)	12.17(3.20)	10.55(3.79)				
	전체(n=37)	12.03(3.01)	10.92(3.48)				
그림기억	600미만(n=8)	10.88(3.52)	10.63(3.70)	.043	.221	.350	
	600이상(n=29)	11.07(3.51)	11.59(3.36)				
	전체(n=37)	11.03(3.47)	11.38(3.41)				
위치찾기	600미만(n=8)	12.25(3.28)	10.75(4.20)	3.863	.129	.130	
	600이상(n=29)	12.38(2.60)	11.34(2.93)				
	전체(n=37)	12.35(2.71)	11.22(3.19)				
모양 맞추기	600미만(n=8)	10.00(2.27)	9.88(1.96)	3.461	2.318	2.804	
	600이상(n=29)	12.48(2.95)	10.10(2.93)				
	전체(n=37)	11.95(2.97)	10.05(2.73)				
언어이해 지표	600미만(n=8)	110.50(8.65)	112.13(9.06)	1.246	.325	3.307	
	600이상(n=29)	111.62(15.72)	104.83(16.04)				
	전체(n=37)	111.38(14.39)	106.41(15.01)				

소검사/지표	M(SD)		F			
	1차	2차	차수	소득	차수*소득	
시공간 지표	600미만(n=8)	107.25(18.41)	109.13(14.78)	.661	.059	1.841
	600이상(n=29)	113.34(17.16)	105.86(16.77)			
	전체(n=37)	112.03(17.36)	106.57(16.22)			
작업기억 지표	600미만(n=8)	110.50(16.20)	105.38(22.29)	1.315	.228	.344
	600이상(n=29)	111.55(15.29)	109.90(15.73)			
	전체(n=37)	111.32(15.27)	108.92(17.11)			
전체 IQ	600미만(n=8)	110.50(14.06)	111.50(10.53)	.000	.048	.150
	600이상(n=29)	112.76(18.19)	111.83(15.47)			
	전체(n=37)	112.27(17.22)	111.76(14.41)			
비언어 지표	600미만(n=8)	110.13(15.22)	110.38(9.86)	.047	.246	.016
	600이상(n=29)	112.72(18.51)	113.69(16.00)			
	전체(n=37)	112.16(17.68)	112.97(14.83)			
일반능력 지표	600미만(n=8)	110.50(16.30)	113.63(12.84)	.129	.047	2.294
	600이상(n=29)	113.28(18.66)	108.21(15.50)			
	전체(n=37)	112.68(17.99)	109.38(14.97)			

주: 가구소득 기준 600만원은 응답자의 중위값임.

## 2) 적응행동 비교

- ▣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 $F = 10.882^{**}$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8] 초등 1학년 아동의 가구소득과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소득	차수*소득	
수용	600미만(n=14)	16.57(1.91)	15.50(1.95)	3.684	.978	1.535
	600이상(n=39)	16.77(2.24)	16.54(2.53)			
	전체(n=53)	16.72(2.14)	16.26(2.42)			
표현	600미만(n=14)	17.07(2.95)	16.71(2.95)	.004	.248	.826
	600이상(n=39)	17.05(2.50)	17.46(2.73)			
	전체(n=53)	17.06(2.60)	17.26(2.78)			
개인	600미만(n=14)	17.57(3.27)	17.00(2.94)	.444	.053	5.483*
	600이상(n=39)	16.59(3.03)	17.62(2.24)			
	전체(n=53)	16.85(3.10)	17.45(2.43)			
가정	600미만(n=14)	17.64(2.27)	17.57(3.46)	3.808	.800	4.631*
	600이상(n=39)	16.03(3.10)	17.49(3.61)			
	전체(n=53)	16.45(2.97)	17.51(3.54)			

영역		<i>M(SD)</i>		<i>F</i>		
		1차	2차	차수	소득	차수*소득
대인관계	600미만(n=14)	17.71(3.02)	18.00(2.83)	2.101	.092	.363
	600이상(n=39)	17.72(2.39)	18.41(2.10)			
	전체(n=53)	17.72(2.54)	18.30(2.29)			
놀이 및 여가	600미만(n=14)	16.00(3.76)	16.50(3.06)	4.076*	.813	.953
	600이상(n=39)	16.31(2.92)	17.74(3.20)			
	전체(n=53)	16.23(3.13)	17.42(3.18)			
대처기술	600미만(n=14)	17.14(3.21)	17.50(3.23)	2.729	.029	.638
	600이상(n=39)	16.67(2.73)	17.69(3.04)			
	전체(n=53)	16.79(2.84)	17.64(3.06)			
대근육	600미만(n=14)	13.71(2.27)	14.71(1.07)	6.055*	8.122**	4.931*
	600이상(n=39)	15.26(1.33)	15.31(1.10)			
	전체(n=53)	14.85(1.75)	15.15(1.12)			
소근육	600미만(n=14)	15.43(2.21)	15.93(1.90)	4.747*	1.937	.314
	600이상(n=39)	15.92(1.83)	16.77(1.66)			
	전체(n=53)	15.79(1.93)	16.55(1.75)			
의사소통 영역	600미만(n=14)	111.36(12.30)	107.21(15.09)	.406	.780	2.444
	600이상(n=39)	111.90(11.79)	113.64(16.11)			
	전체(n=53)	111.75(11.81)	111.94(15.96)			
생활기술 영역	600미만(n=14)	116.21(16.33)	114.86(19.12)	3.716	.378	7.309**
	600이상(n=39)	108.33(17.20)	116.44(17.28)			
	전체(n=53)	110.42(17.18)	116.02(17.61)			
사회성 영역	600미만(n=14)	111.64(18.27)	113.36(15.94)	3.623	.138	1.033
	600이상(n=39)	111.31(14.62)	116.95(14.82)			
	전체(n=53)	111.40(15.48)	116.00(15.05)			
적응행동 조합점수	600미만(n=14)	109.57(14.68)	112.71(18.16)	10.882**	.188	1.779
	600이상(n=39)	109.33(12.55)	116.74(15.98)			
	전체(n=53)	109.40(13.00)	115.68(16.50)			

주: 가구소득 기준 600만원은 응답자의 중위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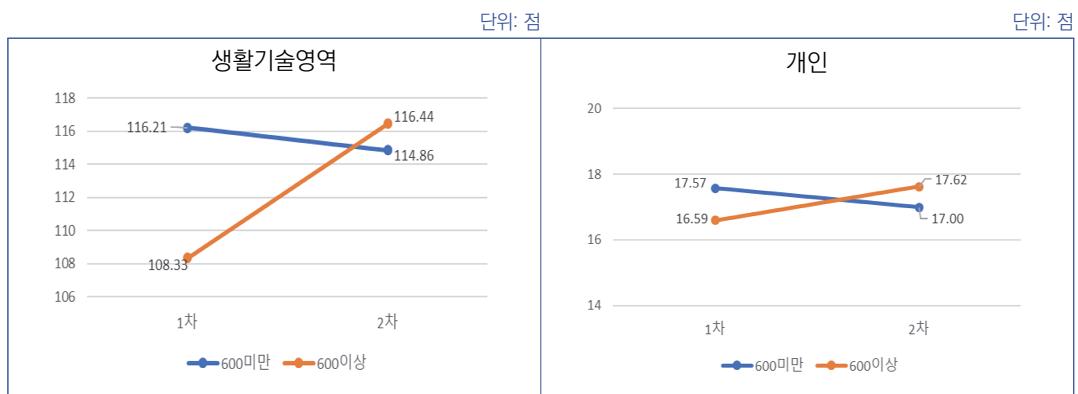
\*  $p < .05$ , \*\*  $p < .01$ .

▣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용과 표현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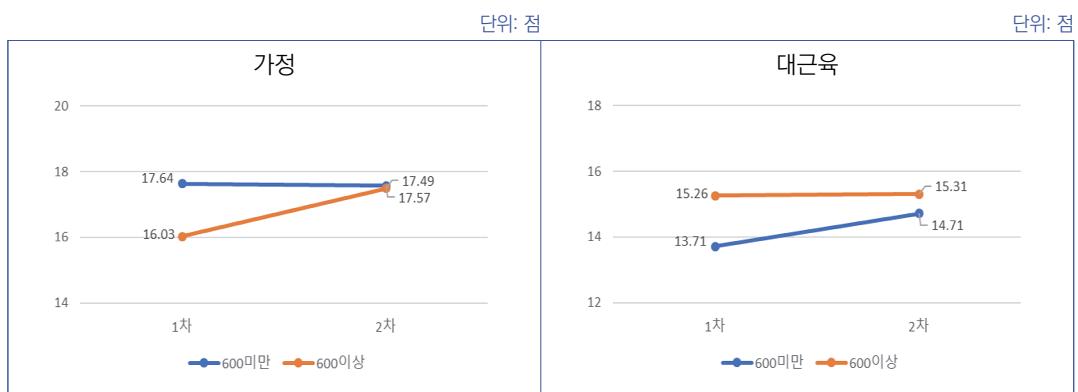
▣ 생활기술 영역에서는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 $F = 7.309^{**}$ )가 유의하였으며, 차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아동은 1차년도( $M = 108.33$ ,  $SD = 17.20$ )에 비해 2차년도( $M = 116.44$ ,  $SD = 17.28$ )에 생활기술 영역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가정 아동의 경우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생활기술 영역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6] 개인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7] 가정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개인 하위영역에서도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 $F = 5.483^*$ )가 유의하였으며, 차수와 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개인의 아동은 1학년도( $M = 16.59, SD = 3.03$ )에 비해 2학년도( $M = 17.62, SD = 2.24$ )에 개인 하위영역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0만 원 미만 개인의 경우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 하위영역에서도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 $F = 4.631^*$ )가 유의하였으며, 차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아동은 1학년도( $M = 16.03, SD = 3.10$ )에 비해 2학년도( $M = 17.49, SD = 3.61$ )에 가정 하위영역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0만 원 미만 가정의 아동은 차수에 따라 유의한 점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성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인관계와 대처기술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다만, 놀이 및 여가( $F = 4.076^*$ ) 하위영역은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한편 대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 $F = 4.931^*$ )가 유의하였으며, 차수( $F = 6.055^*$ )와 가구소득( $F = 8.122^{**}$ )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가정 아동과 600만 원 이상인 가정 아동 모두 차수에 따른 대근육 하위영역의 점수 변화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소근육( $F = 4.747^*$ ) 하위영역의 경우에는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4 제언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관련 기존 연구들의 다소 상충되는 결과들은 초기 언어발달이 인지 발달과 학습 간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의 회복 현상에 안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해석되고,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 초등 1학년 아동의 1, 2차년도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인지발달 전체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언어이해지표 점수가 다소 하락하였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만 3세반 유아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 1학년 아동의 언어이해지표에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인지발달은 1, 2차년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양맞추기 소검사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 특히 생활기술이나 개인 발달과 같은 영역은 대근육 발달에 비해 환경적 자극과 교육적 개입의 효과가 빠르게 반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저소득 집단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추격 효과(catch-up effect)가 나타날 수 있음. 2년간의 종단 추적을 통한 단기간의 해석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회와 경험의 부족으로 위축된 가정과 기관(학교)에서 또래와의 다양한 형태의 놀이 기회와 또래와의 활동을 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분석 결과,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인지발달은 1, 2차년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 영역에서의 차이가 유의했으며, 개인, 가정, 대근육 하위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남.

- 생활기술, 개인, 가정, 대근육 영역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과 차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생활기술과 개인 영역에서는 1차 시점에서 고소득 가구 아동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2차 시점에서는 저소득 가구 아동의 성장 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역전 현상이 발생함.
-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물질적 자원과 양육환경의 질 차이가 초기 아동 발달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돌봄 환경, 또래와의 상호작용, 교사 지원과 같은 외적 요인이 아동 발달에 점차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음.
-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학령 전기의 핵심적인 발달과업이며, 이후 학교 준비도 및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밝혀왔는데, 학령전기 유아가 보이는 또래유능성의 부족, 즉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이후 학업성취 및 행동문제와 관련된다고 언급함(Coolahan, Fantuzzo, Mendez, & McDermott, 2000; Denham & Holt, 1993; Doctoroff, Greer, & Arnold, 2006; 장영은, 성미영, 2015에서 재인용).

▶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한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Schott et al. (2023)의 연구에서는 거주 지역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NSES)가 운동 수행과 억제 조절 성과에 유의미한 연관을 보였고, 특히 낮은 SES 지역 아동이 운동 및 인지 조절 과제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다는 것이 확인됨. Veldman et al. (2024)도 아동의 기본운동능력(FMS)과 사회경제적 변수 간의 연관성에 대해 일관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일부 연구들이 운동 자극 기회, 부모의 지원, 교사의 지도 방식이 발달을 매개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음.
- 분석을 통해 관찰된 대근육 발달 격차의 지속은 단순한 소득 차이를 넘어, 물리적 환경(운동 공간, 장비, 안전 인프라), 사회적 자극(또래와의 활동, 부모·교사의 참여), 지역·정책적 지원 여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는 대근육 발달 격차가 단기간의 자연적 성장만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장기 추적을 통해 구조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함.
-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영역별로 상이한 궤적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생활기술·사회정서적 발달은 교육적 개입 및 환경적 지원을 통해 격차 축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본 연구를 포함한 국내외 여러 연구들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기 개입이 요구됨.

## 참 고 문 헌

- 유한구. (2006). 교육격차의 원인과 대책. *교육평가연구*, 19(1), 1-20.
- 이완정, 김미나. (2018). 빈곤 유아의 학습준비도 및 학교적응. *아동발달연구*, 39(1), 101-122.
- 이정연. (202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복지 정책 과제. *교육복지연구*, 23(3), 55-76.
- 장영은, 성미영(2015). 유아의 가정환경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언어발달의 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1-18.
- 정의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생활 변화. *청소년학연구*, 27(6), 5-28.
- Bourdieu, P. (1973).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n R. Brown (Ed.), *Knowledge, Education, and Cultural Change* (pp. 71-112). Tavistock.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Glynn, L. M., Davis, E. P., Luby, J. L., Baram, T. Z., & Sandman, C. A. (2021). A predictable home environment may protect child mental heal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eurobiology of Stress*, 14, 100291.
- Schott, N., Mündörfer, A., & Holfelder, B. (2023). Neighborhood socio-economic status influences motor performance and inhibitory control in kindergarten children: Findings from the cross-sectional Kitafit study. *Children*, 10(8), 1332. <https://doi.org/10.3390/children10081332>.
- Veldman, S. L. C., Gubbels, J. S., Singh, A. S., Koedijker, J. M., Chinapaw, M. J. M., & Altenburg, T. M. (2024). Correlates of fundamental motor skills in the early years (0–4 year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Motor Learning and Development*, 12, 1-47. <https://doi.org/10.1123/jmld.2023-0003>

2025 KICCE ISSUE PAPER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발달 궤적 분석(II):  
만 5세와 초등 1학년 시기의 변화**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4535 서울 중구 소공로 70 9층  
[www.kicce.re.kr](http://www.kicce.re.kr)